

두산아트랩 공연 2025 ⑧

원인진

<변두리 소녀 마리의 자본론>

연극

320목~322(토) 목금 7시 30분 / 토 3시

쇼케이스 80분

*아티스트 토크 322(토) 공연 후

아티스트 토크는 두산아트센터 팟캐스트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www.podbang.com/dy/7508

창작노트

원인진 (극작가 · 배우)

씩어야 해

죽어야 해

새로 태어나야 해

Prod. Who is she.

언니 있지, 나, 살아남았어.

기침도 멎었어.

엄마가 내 걱정 많이 했지?

나는 언니를 입고 살아.

엄마를 위해 노래 불러.

그러니 언니 있지,

오늘 밤, 눈 내리듯 극장으로 내려와 줄래?

엄마 손을 꼭 잡고 오늘 밤 극장으로 내려와 줄래?

詩作

나에게는 언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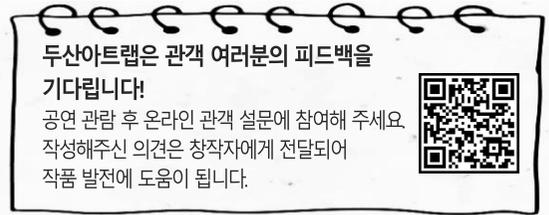
연극이 찾아왔다

연극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들린다

오래전 죽은자들

내 아가리를 열어 죽은자들이 말을 시작한다

이 문장의 주인은 누구인가



공연 소개

@ 컨셉_ 현대의 시작!

초록빛 싱그러운 여름. 오늘은 7년 전, 일가족 동반 자살로 생을 마감한 마리의 생일입니다. 마리는 극작가입니다. 오른쪽 모서리에 고인 이야기를 좋아하는 친구였죠. 그날 밤, 홀로 살아남은 동생 '마음'이 이곳에 곧 도착할 겁니다. 변두리 숲에 자리 잡은 이곳, 연극 공동체에서 '마음은, 마리의 생과 죽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마리의 생일을 축하하고 다가올 기일을 찬란히 마주할 수 있을까요? 저기! 마음이 옵니다. 손에는 <자본론>을 들고 있네요.

@ 시놉시스_ 우리 언니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가족 동반자살의 생존자 마음, 언니 마리의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 언니가 죽던 날 밤 읽었던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들고, 언니가 생활했던 변두리 마을의 연극 공동체를 찾아온다. 7년 만에 마주하는 언니의 죽음을 이해하고 싶은 마리에게 두 명의 여인이 찾아온다. 마리와 두 여인은 마리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함께 '뺑'을 만들면서, <자본론>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한다.

문득, 무더운 여름, 창밖으로 하얀 눈이 내린다.

오늘 이 흰 눈은 죽음을 축복하는 선물.

기쁜 장례식이라는 표시.

@ 집필의도_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할 수 있나?

천연 누룩균과 인공 효모의 차이를 통해 이윤 추구와 경쟁, 그리고 착취에 매몰된 자본주의의 작동 방식과 모순에 대해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관점에 관해 질문을 던지고 싶다. 작품을 통해 자본과 자연, 삶과 죽음, 지역과 예술이 순환하고 상생하는 공동체적 가치와 소중함에 관하여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

@ 키워드

자본론, 평등, 공화, 자본, 부패, 격차, 죽음, 제사, 제의, 마지막 만찬,
천연 효모, 순환, 가루, 하얀 눈, 희생, 흙, 빵, 몸, 물, 말씀, 생명, 지식, 삶,
사랑, 입체, 연극, 극장, 시.

@ 생략된 9장 中

여인 2 증오해도 괜찮아
미워해도 괜찮아
나를 이해할 수 없는 너를 그만 용서해.

그 무엇도 외면하지 않아도 돼.
받아들여도 돼.

그때, 있지. 우리 마지막 밤.
그날, 요금을 안 내서 가스 공급도 중단됐었어.
너의 결심은 누구도 죽이지 않았어.
그 누구도.

오늘 이 눈은 죽음을 축복하는 선물.
기쁜 장례식이라는 표시.

여인 2 하얀 숲을 둘러보며.

이토록 환한 죽음이라니
겨울이 와도 무섭지 않겠다

마음의 죽음에서 마음의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고 싶어서 왔어

너를 아프게 해놓고 너를 치유해 줘도 될까

천천히 여인 2에게 다가가는 마음.

여인 2를 살포시 만져보는 마음.

마음 언니네.

언니다.

울음.

마음 보고 싶었어.

여인 2 나도.

마음 언니.

여인 2 응?

마음 나, 있잖아. 언닐 입고 살아도 돼?

여인 2 응?

마음 언닐 빌려 살아도 돼?

나, 있지.

언니와 함께 죽기 위해 언니와 함께 살 거야.

언니의 눈으로 살 거야.

언니가 남긴 것이 죽음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을

내가 증명할 거야.

여인 2 건강하기를.

행복하기를.

현명하기를.

고통받지 않기를.

평화가 늘 가득하기를.

이 하얀 눈을 기억해.

모든 병들고 아픈 것들을 덮어버리는

잠재우고, 썩히고, 다시 돌아오는

하얀 눈을 기억해.

겨울이 오면

찬란하게 겨울을 맞이해줘.

기획 두산아트센터

작·구성 원인진

기술진행 임지성

출연 서진 김란희 원인진 원희진

사전인터뷰 와타나베 이타루(타루마리)사이토 요리아키(새의극장)

Christine Fentz(시크릿 호텔 극장·어스와의 레지던스)

조명디자인 이상근

영상디자인 강보경

음악 고낙원

프로덕션 무대감독 이지혜

고마운 분들

김미도 최치언 박지선 박주희 원중희 정계영 원미진 원진

창작집단 상상두목

[두산아트랩 공연 2026 공모 안내]

일정 2025.5.7~2025.6.4

대상 40세 이하, 한국 국적 예술가,

장르 제한 없음

*자세한 내용은 추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두산아트랩은 40세 이하 젊은 예술가들이

새로운 작품을 실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